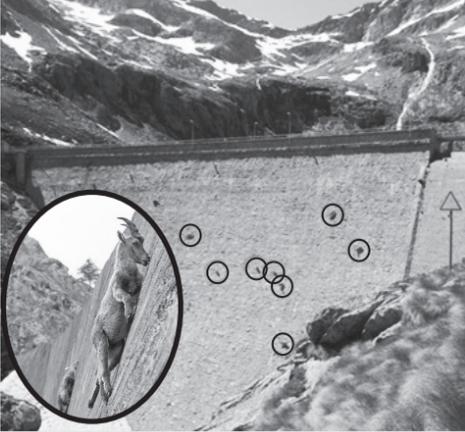


야생 염소들이 댐 경사면에 오른 이유



▲ 160피트 높이의 댐 경사면에 염소들이 올라가 (작은 원들) 염분 섭취를 위해 허로 경사면을 하고 있다.(사진 큰 원)

야생 염소들의 아찔한 절벽타기 기술이 이탈리아의 한 댐에서 포착됐다.

최근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주 안트로나 계곡 신기노담(Cingino Dam)의 '스파이더 염소'로 유명한 알파인 아이벡스(Alpine ibex)의 모습을 11일 영국 더선이 소개했다.

눈으로 봐도 믿기 힘든 장면이 포착된 곳은 안트로나계곡의 수력발전소인 높이 약 50m 신기노담. 아무것도 없는 수직에 가까운 댐 경사면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야생염소들이다.

알파인 아이벡스는 보통 4,600m 이상의 가파른 암벽 지형에서 서식한다. 이들이 오르기도 힘든 수직의 댐 경사면을 오르는 이유는 몸에 부족한 염분과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다.

페데리카 그라시(63)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댐 경사면에 오른 염소들이 허로 경사면을 할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라시는 "15~25마리의 염소들이 동시에 댐을 오르고 있었고 나머지 염소들은 댐 아래에서 쉬고 있었다."고 전했다.

안트로나계곡의 현지인에 따르면 댐은 160피트(약 49m) 높이로 경사면은 거의 수직인 90도에 가까우며 염소들은 고무 발굽과 균형을 잡는데 도움을 주는 큰 속귀를 가지고 있어 이곳에 오르는게 가능하다.

3대가 같은 대학 동급생

가족 3대가 같은 대학에서 동급생으로 재학하고 있어 화제이다.

16일 CBS에 따르면 아일랜드 출신의 할머니 메리 험블과 딸 데어드레이 허치슨, 손녀 조지나가 나란히 미 매사추세츠 로웰대학(UML)에 재학 중이다.

60여년 전, 당시 15살이었던 메리 할머니는 가족 사업을 돕기 위해 학교를 중퇴했다.

세월이 흘러 가정주부가 된 메리 할머니는 비호지킨 림프종(non-Hodgkin's lymphoma) 4기 진단을 받았다. 살날이 3년도 채 남지 않은 그때 할머니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으로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증서(GED)를 받았고, 전문학사학위도 취득했다. 암 투병 후 현재 대학에서 자유 예술학을 공부하고 있다.

딸 데어드레이가 로웰 대학에 들어온 건 엄마의 권유 덕분이었다. 딸 역시 고등학교 2학년 때 심각한 톡소플라스마증(toxoplasmosis) 감염으로 한쪽 눈이 일시적으로 멀었고 심한 두통으로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도 검정고시로 고교졸업증을 받았고, 지난 봄 엄마가 다니는 학교에서 역사 수업을 청강한 후 입학할



결심하게 됐다. 데어드레이는 "대학은 나와 먼 꿈이었는데 엄마를 통해 다시 학교에 다닐 용기를 갖게 됐다."며 기뻐했다.

이후 메리의 손녀딸 조지나가 마지막으로 같은 대학에 들어왔다. 1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조지나는 같은 시기 타 대학에서 법 과학을 공부 중이었지만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 학기만 마친 후 할머니와 엄마가 있는 대학에 편입했다.

메리 할머니는 "학습의 즐거움을 나를 살아있게 한다. 학교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이라며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힘이 난다."고 말했다.

죽음 앞두고 꿈 이룬 여성

죽음을 앞둔 한 50대 여성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었다.

16일 미국 최대 소셜사이트 레딧닷컴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의 한 호스피스 시설에 거주하는 환자 토라 멀린스(55)는 친절한 구조대원들과 간호사 덕분에 마지막 바람을 이룰 수 있었다.

평소 멀린스는 축소 모형 등대와 사진들로 방을 장식할 만큼 등대를 좋아했지만 실제로는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었다. 죽기 전 등대를 보는 것이 소원이었기에 간호사 베벌리 벨가르드에게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냐고 물었다.

벨가르드는 즉시 행동에 나서 브루스터 응급 구조 서비스에 연락해 도움을 구했다. 브루스터의 구조대원 브라이언 코스타와 코로브시는 멀린스의 선뜻 응해주었



고, 멀린스를 태우고 한 시간 넘게 운전해 매사추세츠에서 유명한 시추에이트 등대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멀린스를 등대까지 데려다주었고, 덕분에 그녀는 가까운 거리에서 등대를 두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었다.

행복함에 얼굴이 달아오른 멀린스는 침대에 앉아 "이제야 등대와 항구를 둘 다 볼 수 있게 됐다. 파도 소리도 귓전에 울린다."면서 "내 꿈이 이뤄졌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구급대원들은 "멀린스가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갈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면서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 우리에게도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연체세금 해결
- 법인설립
- 세무감사대행
- 해외자산보고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